

## 전남 10월 마지막 주말 곳곳서 축제... "추억 선물"

가을 정취 물씬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 변모  
함평 국향대전·구례 단풍·무안 낙지 등 다채  
아시아·선상 투어 등 미식·체험 콘텐츠 주목

10월의 마지막 주말, 전남 곳곳이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남도만의 풍광은 물론 맛깔난 남도미식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가득 채워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주 개막한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18-11월3일)을 시작으로 ▲광양 K-POP 페스티벌(25-28일) ▲진도 보배섬 문화예술제(25-27일) ▲완도 청정완도 가을섬여행(25-27일) ▲담양 창평 전통음식축제(25-28일) ▲구례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28일) ▲순천 순천만 갈대축제(28-27일) ▲무안 갯벌낙지축제(28-27일) ▲강진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28-11월3일) ▲영암 월출산 국화축제(28-11월10일) 등 축제가 진행된다.

전남도 대표축제인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28일까지 진행되는 별빛달빛어울림마당 야시장 행사를 비롯해 함평천지전통시장과 함평읍 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

에서 다채로운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전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라인업으로 중무장한 광양 K-POP 페스티벌에는 20일 비, QWER, 하이키, 아재연, 브브걸이 20일은 박정현, 신용재, 장윤정, 김연자 등이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부모님과 함께라면 우수한 전남 자연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와 순천만갈대축제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지리산 피아골 단풍 축제에서는 지리산 10경에 틀 만큼 가을 지리산의 대표 볼거리로 꼽히는 피아골 단풍을 비롯해 산신에게 군민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는 단풍 제례, 삼홍소 단풍길 걷기행사 등을 즐길 수 있다.

흐드러진 갈대 속 낭만적인 분위기의 순천만을 눈에 담을 수 있는 순천만갈대 축제에서는 어싱길 걷기 등 순천시의 생태철학을 공유하는 프로그램과 야간 출입 통제 구간에서 진행되는 순천만의 하룻밤, 갈대숲 별빛데이트, 새벽선상투어 프



'국화 향기에 취해보세요'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리고 있는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을 찾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가을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형형색색의 국화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다음달 3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김애리 기자

로그램 등 이색체험도 경험할 수 있다. 가을 축제 열기는 다음 달에도 이어진다. 전남도 대표축제 10선에 든 해남 미남축제(11월1-3일), 고흥 유자축제(11월7-10일)을 비롯해 ▲보성 벌교꼬막축제(11월1-3일) ▲무안 세계 음악극 페스

티벌(11월1-3일) ▲신안 아자니아꽃 축제(11월1-10일)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11월2일) ▲나주 남도주류페스타(11월8-9일) ▲무안 YD페스티벌(11월15-17일) 등 행사가 전남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을을 맞이해 전

남도만의 고유한 문화와 특산물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들이 준비돼 있다"며 "전남의 따뜻한 환대와 풍부한 가을 정취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찾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 전남 가을 축제 현황(10-11월)

지역	축제명	기간
함평	국향대전	10월18-11월3일
광양	K-POP 페스티벌	10월25-28일
진도	보배섬 문화예술제	10월25-27일
완도	청정완도 가을섬여행	10월25-27일
담양	창평 전통음식 축제	10월25-28일
구례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	10월28일
순천	순천만 갈대축제	10월26-27일
무안	갯벌 낙지축제	10월26-27일
강진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10월26-11월3일
영암	월출산 국화축제	10월26-11월10일
보성	벌교 꼬막축제	11월1-3일
무안	세계 음악극 페스티벌	11월1-3일
해남	미남축제	11월1-3일
신안	아자니아꽃 축제	11월1-10일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11월2일
고흥	유자축제	11월7-10일
나주	남도주류페스타	11월8-9일
무안	YD페스티벌	11월15-17일

## KIA, 한국시리즈 대구에서 끝낸다



라우어 3차전, 네일 4차전 선발 출격

막강 타선, 삼성 마운드 '압도' 기대

KIA 타이거즈가 2024 한국시리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2연승을 달성한 호랑이 군단은 이제 대구로 이동해 사자 군단 삼성 라이온즈와의 운명을 결정지을 3·4차전을 갖는다. 홈에서 한국시리즈 1·2차전을 모두 잡은 KIA는 통산 12번째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승만 더 거두면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번 시리즈의 흐름은 KIA가 확실히 주도하고 있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2차전을 승리한 팀이 90%의 우승 확률을 자랑하는 만큼, KIA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KIA가 시리즈 초반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건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에서의 이범호 감독의 용병술이 결정적이었다. 6회 무사 1·2루 위기 상황에서 이 감독은 우완 전상현을 투입해 삼성의 타선을 무

실점으로 막아내며 경기를 뒤집었다.

반면 삼성은 중요한 순간에서 번트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며 기회를 놓쳤다. 이 한 번의 작전 차이가 5-1 역전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KIA가 한국시리즈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2차전을 통틀어 KIA는 전력면에서도 삼성을 전반적으로 압도했다. KIA의 팀 타율은 0.274로 삼성의 0.232보다 우세했고, 팀 평균자책점은 1.50으로 삼성의 6.75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기록만 보면 방망이, 선발투수, 볼펜 등 어느 하나 삼성에 뒤질 게 없다.

이제 KIA 팬들의 관심은 3·4차전이

열리는 대구로 집중되고 있다.

3차전은 심기일전한 삼성의 대반격이 예상되는 만큼 KIA는 선발투수 라우어가 마운드에서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이번 승부의 최대 관건이다. 라우어가 초반에 삼성의 타선을 잘 막아준다면 중·후반부터는 타선과 볼펜의 힘으로 승부의 추를 가져올 수 있다. 올 시즌 삼성 전에서는 1경기에 등판해 3.1이닝 7피안타 4실점을 기록했다.

삼성 선발투수는 이번 리그 KIA를 상대로 3차례 만나 2패(평균자책점 8.8)의 성적을 남긴 레예스가 마운드에 오른다. 두 선발투수 모두 상대 전적이 좋지 않아

활발한 타격전 전개를 예상할 수 있다.

28일 열리는 4차전은 1차전에서 맞붙은 KIA 에이스 네일과 삼성 토종 에이스 원태인의 재대결이 예상된다. 만일 3차전도 KIA가 승리한다면 지난 1차전 맞대결을 펼쳤던 두 투수는 이번에도 팀의 명운을 건 중요한 일전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1차전에 선발로 나서 5이닝 4피안타 6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던 네일은 4차전이 올 시즌 방어율왕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시즌 다승왕에 오른 삼성 원태인도 1차전에서 5이닝 2안타 3삼진 무실점으로 기아 타선을 완벽 봉쇄한 만큼 이번엔 안방에서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더욱이 4차전 입장권이 이미 매진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구 홈팬들의 성원과 팀 타선의 화끈한 지원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2면에 계속 /주홍철 기자

세계의 리더가 되어야!  
유비쿼터스 전라남도 행복시대

## 전남의 깨끗한 바다에서 생산한 수산물

### 안심 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전라남도